



① 108선원순례단 단원들이 불국선원에서 좌선삼매에 빠져 있다. ② 불국선원에서 선원장 중우 스님에게 참선을 지도받는 모습 ③ 불국사 백운교에서 기림사지 ④ 무설전에서 열린 법회에서 법문을 합송하는 단원들

### “선원 공양 전통 되살릴 것”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



“사라져 가는 선원 대중공양 전통을 살리기 위해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승보공양 문화가 교계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08선원 순례에 대해 “불제자로서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삼야도를 면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동안 선원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부족해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번 108선원 순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스님은 그동안 선원 공양을 홀로 다녔다.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는 선방 수좌 스님들을 볼 때마다 그 원력에 청계사로 돌아와서도 힘이 넘쳤다. 좋은 것은 권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신도들에게 선원 대중공양을 겸한 순례를 제시했고 신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졌다.

스님은 “안거기간 수행하는 곳을 방문하기에 많은 인원을 꾸리기 힘들다”며 “적은 인원이지만 선원 곳곳을 다니며 보고 느끼고, 또 정성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안거기간 수행하는 곳을 방문하기에 많은 인원을 꾸리기 힘들다”며 “적은 인원이지만 선원 곳곳을 다니며 보고 느끼고, 또 정성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승보공양 문화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정진”

##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단, 첫 순례 동행기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월 23일 경주 불국사와 불국선원, 석굴암과 기림사, 분황사를 참배하는 제1회 108사찰과 선원 순례를 개최했다. 이날 첫 순례에는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을 비롯해 자현 순례단 단장 등 청계사 신도 임원 33명이 함께했다.

경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국정도의 108선원 순례를 앞두고 서원합니다. 부처님 법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승보공양의 문화가 자리 잡는 그 날까지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한 순례가 아니었다. 1월 23일 하얀 순례복을 맞춰 입은 33명은 매서운 겨울날씨에 얼음장 같은 법당에서 미동도 없이 스님들의 수행정진에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했다. 순례에 참여한 이들의 표정에는 깨달음을 향한 구도열정이 드러났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가 주최한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시간이 걸려 경주 불국사 불국선원에 도착했다.

선원에 도착하자 말소리는 절로 줄어들었다. 안거 중인 스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다. 내리던 진눈개비도 순례단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 모습을 감추었다.

선원장 중우 스님의 안내로 순례단 33명은 선원에서 대중공양물을 올리고 불국선

수개월동안 정진한 스님들의 청량한 기운이 순례단에 전해졌는지 모두들 삼매에 빠진 듯 했다. 30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례단은 다시 길을 나섰다.

자현 순례단 단장은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과 같이 안거를 하지 못하는 재가자들이 주변 사찰에 머물며 100일 기도에 동참했다고 한다”며 “안거 기간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이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선원에서 점심공양 후 불국선원을 둘러본 것도 잠시 순례단은 선원 뒤로 난 오솔길을 따라 불국사로 향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다보탑과 석가탑이 순례단을 반기는 듯 했다.

불국사에서는 대웅전 뒤 무설전에서 법회를 진행했다. 관광객이나 기도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한 배려였다. 하지만 기도포와 순례단복을 갖추고 합송하는 모습은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불국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들고 이들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지심귀명례를 하며 기도가 시작됐다. 차가운 법당도 이들의 열기에 곧 훈훈해졌다. 법당 바깥에서는 금강 같은 발원이 새어 나왔다.

### 버스 출발하자 법당으로 변해 불국선원서 대중공양 후 좌선 분황사 등 참배하며 서원 세위

원에 모셔진 월산 대중사 영정에 절을 했다. 이어 순례단은 선원장 중우 스님의 지도하에 스님들의 공양시간 동안 선방에서 좌복을 깔고 잠시 좌정에 들었다.

“진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바뀌어도 진실한 마음, 생각을 지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거저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그 마음을 찾아보세요.”

합장을 하고 바닥에 이마를 뒀다. 서 있을 땀 가슴에 모은 두 손으로 신심을 부여잡았고, 굽은 등은 하심 하겠다는 서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순례단원들은 함께 순례에 동참한 도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청계사에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매순간 정법 수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모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또 항상 비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께 안내하겠다고 서원했다.

법회가 끝나고 성행 스님은 순례단원들에게 불국선원과 불국사가 새겨진 염주알을 나눠주며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순례에 참여한 해안심 보살은 “평소 참선 수행하며 전국 제방 순방에 꼭 와 보고 싶었다”며 “스님들의 정진하는 모습을 보며 박찬 환희를 느꼈다”고 말했다.

자현 거사는 “개별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선원을 찾아 도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며 “완주까지 함께하며 불교 안에서 필요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일정은 불국사 이후 석굴암, 기림사 순례에 이어 분황사에서의 모전석탑 탐방이와 서원지 소지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순례단의 서원을 담은 불꽃은 경주의 밤하늘로 높이 올라갔다.

###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속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방경일 글/김광일 삽화/국판변형/256쪽/값10,000원

### 병사와 풍경소리

어떻게 군생활을 의미있게 보낼 것인가? 군법사인 저자가 강원도 산골의 병영에서 전하는 병사들의 일상과 군생활의 지혜!

보경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56쪽/값 10,000원

### 대승기신론의 세계

전문가와 일반 불자들을 아우르는 알기 쉬운 해설!

계환 지음/신국판양장/388쪽/값 17,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